

서울 25개 자치구의 ‘사회적 질’ 차이

김진원 · 한민정¹⁾

<요약>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내 각 자치구는 단순한 행정적 구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비롯, 사회·경제적 하부구조를 집합적으로 영위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서울의 각 자치구들은 1970년대 도시개발의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균등한 하부구조를 지니게 되었으며, 이는 1995년 지방자치제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자치구의 구조 차이는 해당 자치구의 주민들이 누리는 ‘사회적 질(social quality)’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시군구 단위 지역통계(2005년 기준) 및 서울시의 <2005 서울 서베이>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 질’과 하부구조를 설명하는 변수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질’을 크게 안전성(security)·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사회적 권한부여(social empowerment)의 4차원으로 나누는 뒤 지수를 도출하여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한 자치구별 ‘사회적 질’ 지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자치구별 사회구조적 속성 및 사회적 질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결망 분석, 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서울 각 자치구 간에 ‘사회적 질’에 차이가 나타남을 드러냄과 동시에 사회적 질의 차이를 하부구조의 속성과 관련지어 해석하고자 하였다.

1)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졸업(2007. 2월).

I. 문제제기

한국에서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권리로서 논의된 것은 오래 되지 않는다. 특히,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을 중시한 한국에서 복지란 게으른 사람들이 국가에서 받는 수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개인의 삶의 질의 영역은 성장보다 덜 중요한 영역으로 치부되었다. 이와 함께 수출 위주 산업 전략은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계급 계층 간의 불균형한 발전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권위주의 정부는 공간적으로 수도권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정책적으로 지속하여 지역 간, 지역 내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도시화는 196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강력한 권위주의적 중앙정부의 도시계획 하에 공고화되었다. 특히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이란 측면은 개발과 경제발전의 요구에 의하여 경시되었다.

따라서 권위주의 정부 중심의 강력한 도시계획과 다소 짧은 기간의 도시화 과정은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성장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은 지역 간의 경제, 사회문화적 격차를 가져왔으며, 지역 내부에서도 비슷한 격차를 야기했다. 이러한 지역적 불평등은 구조적으로 내재화되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더욱더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치구의 재정상태, 거주상태, 복지의 접근성 등에서 차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시정부의 행정적 단위인 지방자치단체 간의 질적·양적 차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발전의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을 서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서울시 내의 각 지방자치체는 하나의 행정적 구획의 역할뿐만

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공동체로서 공동의 삶의 질을 추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삶의 질을 ‘사회적 질(social quality)’로 정의하고, 다양한 사회 구조적 변수가 사회적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1. 선행연구: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1) 도시 개발과 사회적 분화: 역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거주지 분화는 두 개 이상의 상이한 집단이 다른 환경에서 분리되어 살아가는 현상을 의미한다(Massey · Denton, 1988). 거주지 분화의 다양한 이론적 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거주지 분화는 도시화와 교외화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시화 이전, 도심은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모여 사는 곳이었으나, 산업화 이후 중산층 백인의 교외 이주가 진행되었다(Wilson, 1987; 성열관, 2005). 결과적으로 도시화 이후 도심은 범죄, 폭력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의 공간’이 되었다.

반면, 한국에서의 거주지 분화는 미국과는 다른 전통을 지닌다. 한국의 도시화는 권위주의 정부의 도시개발 전략과 맞닿아 있으며, 이는 서울의 도시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나타난다. 한국에서 도시 개발은 산업화와 함께 정책적인 화두였다. 1960년대 개발정책과 1970년대 강남개발을 거치며 이는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경제개발정책이 촉진되던 1970년대 서울의 주택시장은 계급 구성의 변화와 함께 변모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 화이트 칼라 출신 중산층이 서울에 집중적으로 거주함에 따라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는 신시가지 개발로 이어졌다

(김한준, 1989: 61-63; 홍영립, 1993). 따라서 중산층의 대단위 주거 단지로서 서초 강남지역이 개발되었다. 이와 함께 강북 성장을 억제²⁾하는 취지로 공공기관, 학교 등의 이전³⁾이 이루어졌다(손정목, 1999). 도시개발의 역사에서 강남 서초 지역의 개발의 직접적인 동기는 1969년 2월에 준공한 제 3 한강교(현 한남대교)와 1970년 7월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었다. 1972년 유신이후 정부는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 강남개발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위해 다양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⁴⁾.

1970년대 도시개발정책은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강남을 중심으로 한 특정지역 개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시기 도시개발정책으로 인하여 강남은 중산층 거주지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현재에 이른다. 이 시기 선택과 집중적인 경제발전은 특정 지역의 사회적 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은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지역 사회가 포함하고 있는 하부구조의 격차는 서울 내의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더욱 더 크게 벌리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현재 거주민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손정목은 강남 개발정책이 강북억제책과 더불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바 있다. 1972년 2월 9일 양택식 서울시장은 “사치, 낭비 풍조를 막고 도심지 인구의 과밀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강북지역 억제에 의지를 보인바 있다. 1972년 4월 3일에는 종로구와 중구의 전역, 용산구, 마포구의 시가지전역, 성북구, 성동구의 일부지역까지 약 840만평을 “특정시설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백화점, 도매시장 등의 신규시설 건설을 불허했다. 이는 72년 12월 30일자로 법률 제2434호로 발효되었다. 1975년 구자춘 서울시장은 ‘한강이북지역 택지개발금지조치’를 발표하여 강북지역의 토지 형질변경, 지목변경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손정목, 1999: 93).

3) 주요 명문 고등학교들의 강남 이전은 강남 지역이 발전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1974년 학군제 도입이후, 경기, 서울, 휘문, 배재, 한영, 숙명여고, 경기 여고 등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함에 따라 8학군 과열 현상을 야기했다.

4) 손정목에 따르면,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재정공포로 인하여 강남개발은 더욱더 가속화되었다. 이는 정부가 재개발 촉진 시키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주택건설촉진지구’ 혹은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구 내의 특정 건축물과 그 대지에 한해서는 첫째,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면허세를 면세(제 5조 조세의 면제), 둘째, 이미 납부한 세금 환급, 셋째, 자금융자와 기타의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손정목, 1999: 92).

(2) 지방자치제 실시와 사회적 질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란 보통 “시민들이 건강과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게끔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의 사회 경제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한다”고 정의된다(Beck et al., 2001). EU에서 사회적 질은 사회경제적 안전(socio-economical security),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적 권한부여(social empowerment)로 구성된다⁵⁾. 사회경제적 안전은 개인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への 접근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적 응집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친족, 친구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사회적 포용이란 개인이 다양한 집단, 제도에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권한부여는 헤르만(Herman, 2003)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 참여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그림 1] EU Social Quality의 사분면

- 5) 사회의 질 연구는 1997년 사회의 질에 대한 암스테르담 선언(Amsterdam Declaration of the Social Quality of Europe) 채택이후 1000명 이상의 유럽학자들이 서명, EU에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필립과 버만(Phillips · Berman, 2003)은 다양한 사회적 질(Social Quality)중 “커뮤니티 그 자체로서의 사회적 질”을 강조했다. 이는 스스로의 권리를 구현하는 과정과 국민국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집합적인 커뮤니티를 의미하며, 이는 중앙국가의 법적·정책적 기제에 큰 영향을 받는다⁶⁾(Phillips and Berman, 2003; 345).” 필립과 버만(Phillips and Berman, 2003)의 사회적 질의 이해는 본 연구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논점을 제시한다. 사회적 질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과 그에 대한 만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기제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지는 한국의 사회적 질을 논의함에 있어 영향력을 갖는다.

지자체 실시 이후 도시정부는 지역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제적 지역복지 향상, 산업화,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기에 이르렀다(Peterson, 1981; 홍운기, 2004).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문화적 번영과 분배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모든 지자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어떠한 지자체는 풍부한 재정을 근거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있다. 이러한 하부구조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지역민의 사회적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지자체간의 재정과 사회문화적인 풍토는 매우 다르다. 서울시민은 커다란 자치단체인 서울시 공동체에 속해있지만, 동시에 ‘구’라는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 속해있기도 하다. 서울은 ‘구’를 중심으로 행정적으로 분화되는 것 이외에도 개인의 인식에 있어 어떠한 ‘구’에 거주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특정 구에 거주한다는 것은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비롯한 하부구조를 집합적으로 영위한다는 것을 의미⁷⁾한다. 이러한 소단위의 지역의 중요성은 1970

6) 이는 시장의 왜곡이 가능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하부구조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에선 병원, 도로 등이 있다.

7) 도시 공간의 노동력 재생산 기능은 많은 도시연구자들에 의하여 주목을 받아온바 있다. 노동력의 재생산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용가치인 주택, 음식, 위락시설 등을 소비함으로써 가능하며(Saunders, 1984), 이 실현수단이 주택, 병원, 사회 서비스, 학교,

년대 중앙정부 위주의 도시개발의 과정을 거치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조(Gurr and King, 1987; Goldsmith, 1995; 박용치, 1996; 이광희, 2002)되면서 더욱 공고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각 개별 도시정부는 재정을 자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해야 하며, 이는 거주민들의 개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박용치, 1996; 163)”는 주장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강조되면서, 도시정부의 다양한 차원이 거주민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III.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지금까지 사회학에서는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 지역 자체의 특성과 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보다는 지극히 개인적 수준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현상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이를 경험하고 관리하는 단위인 지역 차원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단위를 ‘지역 공간’으로 설정하여, 개인은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귀속되어 공동의 사회적 질을 향유할 운명을 지닌 존재로 가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범위를 서울 자치구로 한정하고자 하는데, 서울은 1970년대 이후 한국 도시개발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지방자치제의 성과가 비

레저시설, 문화시설 등이다. 이들은 시장에 맡길 경우 왜곡되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을 통해 개입하게 되고, 그 결과 집합적인 소비방식의 전략을 취하게 된다(Castells, 1972).

하지만, 하부구조의 집합적 소비에도 불구하고, 이는 계급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표출된다. 특히 거주지는 교육, 직장, 사회서비스 등으로의 접근성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위획득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윤인진, 1996). 따라서 어떠한 주거지에 거주하느냐는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 거주지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은 주류 사회에서 가장 선호되지 않는 공간을 선택하고 점유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은 불평등한 구조를 내재한다(Power, 2000).

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 ‘특별시’라는 공간 내부에서 다시 공간의 분화가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크게 자치구가 내재하고 있는 하부구조를 설명하는 변수와 자치구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구의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를 표현하기 위해 단일 자료가 아닌 다양한 통계적 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자료를 구성하였다.

<표 1> 분석 자료의 내용과 출처

차원	변수	내용	통계자료 출처
구조적 요인	인구적 변수		
	인구당이혼건수	(이혼건수)/(인구)	통계청, 『시군구 단위 지역통계』
	인구당전입자수	(전입자수)/(인구)	
	인구당전출자수	(전출자수)/(인구)	
	사회기반변수		
	인구당 5명이상 사업체수	(5인이상 사업체수)/(인구)	통계청, 『시군구 단위 지역통계』
	인구당은행점포수	(은행점포수)/(인구)	
	인구당의료기관수	(의료기관수)/(인구)	
	인구당공무원수	(공무원수)/(인구)	
	사회경제적 변수		
	인구당차량등록대수	(차량등록대수)/(인구)	통계청, 『시군구 단위 지역통계』
	인구당지방세납입액(ln)	(지방세입)/(인구)	
	인구당고등교육기관진학자수	(고등교육기관진학자수)/(인구)	
	인구당임시일용직근로자수	(일용직근로자수)/(인구)	
	아파트평균매매가(ln)	(2005년 기준 매달말일 아파트 평균가격의 합)/12	KB아파트동향 매매조사
	지역더미		
	지역구분1(dummy)	1. 강남, 0. 그 외 자치구	
	지역구분2(dummy)	1. 강북, 0. 그 외 자치구	

<표 1> 계속

사회경제적 안전 (Social Security)	자연재해 안전감	항목에 점수 부여(1점: 매우 안전하다~5점 매우 위험하다) 후 10점 만점으로 환산	서울시, 『2005 서울 서베이』
	서울밤길 안전감		
	범죄피해 안전감		
	붕괴 안전감		
사회적 응집 (Social Cohesion)	노인 사회참여정도	노인의 사회활동	서울시, 『2005 서울 서베이』
	스포츠레저활동 참여율	스포츠관람 연간 이용률	
	대중문화 참여율	대중문화 연간 참여율	
	순수문화활동 참여율	순수문화활동 연간 참여율	
	교양서적 독서량	교양서적 연간 독서량	
사회적 포용 (Social Inclusion)	노인부양		서울시, 『2005 서울 서베이』
	교통만족도	버스,지하철,택시이용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후 평균값 산출	
	행복지수	일상생활만족도(10점 만점)	
사회적 권한부여 (Social Empowerment)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관적 태도(10점 만점)	서울시, 『2005 서울 서베이』
	여성의 가사노동 편중정도	항목에 점수 부여(-2점: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2점: 주부가 전적으로 책임) 후 10점 만점으로 환산	
	지역커뮤니티 참가율	2005년 지역커뮤니티 참가	
	서울 고향 인식률	서울을 고향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비중	
	환경오염 방지노력	10점 만점(1점: 전혀 노력하지 않음~10점: 매우 노력함)	
	자원봉사자 비율	2005년 자원봉사 활동여부	
	시민기부	2005년 기부여부	

이를 위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할 사회구조적 요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통계청 『사망통계연보』, 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등에 수록되어 있는 집계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 독립변수의 선정과정에서 European Foundation of Social Quality (www.socialquality.org)에서 제시한 지표 구성을 참고하였다. 즉, European Foundation of Social Quality는 사회적 질을 네 영역으로 구분한 후 그에 맞는 다양한 지수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 EU연구의 지표 구성 요소를 참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적 맥락에 맞게 수정하였다⁸⁾. 기존의 사회의 질 연구가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포용, 사회적 응집, 사회적 권한부여의 네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안전감을 안전에 대한 의식, 즉 안전성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안전성과 하부구조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사회적 질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질의 정도로 한정하여 정의하였다. 서울시에서 공개한 2005년도 『서울서베이』 보고서로부터 사회적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응답 자료를 수집하였다.

2. 분석 방법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25개 자치구명을 행(column)으로 하고, 사회구조적 요인 및 안전성·사회적 응집·사회적 포용·사회적 권한부여 등의 수치를 열(row)로 하는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사회구조적 변수로 수집된 자료는 인구당 수치로 변환하였으며, 그 중 인구당 지방세 납부액, 아파트 평균매매가와 같이 편포가 심한 일부 지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선형관계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연로그값을 취하였다.

먼저 서울 ‘특별시’라는 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질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5년도 『서울 서베이』 보고서로부터 수집한 사회적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응답 자료로 사회적 질을 크게 4가지 차원으로 구분, 각 차원의 사회적 질 지수를 계산하고 이를 GIS

8) European Foundation of Social Quality(www.socialquality.org)의 사회적 질의 연구는 다양한 지표의 수집과 국가 비교에도 불구하고, 지표간의 관계성이나 국가와 지표간의 뚜렷한 사회통계적인 분석을 보여주지 않는다. 단지, 다양한 사회적 질의 지표의 변화를 제시할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유럽의 맥락에서의 사회적 질을 토대로 한국의 맥락에서 사회적 질을 분석할 수 있는 변수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European Foundation of Social Quality(www.socialquality.org)의 사회적 질은 부록을 참조할 것.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자치구별 사회적 질 지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치구별 하부구조의 격차가 안전성·사회적 응집·사회적 포용·사회적 권한부여의 4가지 사회적 질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먼저 강남의 3개구, 강북의 3개구, 그 외 19개 자치구로 지역을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된 자치구간 사회적 질의 평균차를 검증하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질의 자치구별 분포 특징을 보일 수 있도록 연결망 분석방법을 도입, 대응분석 등 일련의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자치구별 사회구조적 속성 및 사회적 질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질의 차이를 하부구조의 속성과 관련지어 해석하고자 하였다⁹⁾.

IV. 서울 자치구별 사회적 질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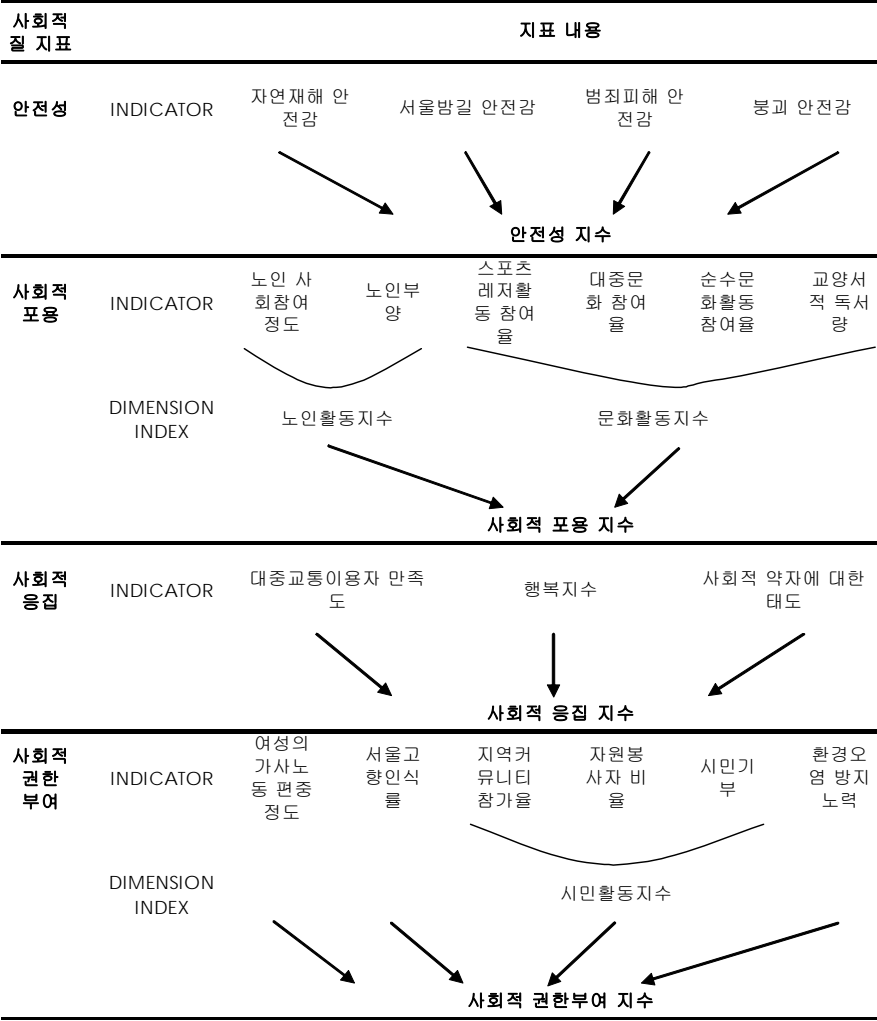
1. 사회적 질 지수 산출

2005년도 『서울 서베이』 보고서로부터 사회적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총 19개의 지표(indicator)를 도출하였다. 이들 지표를 동일한 척도로 환산하고 [그림 2]와 같이 사회적 질의 네 가지 차원에 맞게 분류한 후, 각 차원의 지수(dimension index)를 계산해 내었다. 지수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UNDP가 *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랐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9) 다양한 분석을 위해 제각기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사회적 질을 GIS로 표현함에 있어서는 ArcView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연결망 분석을 위하여 Netminer와 Ucinet을 병용하였고, 회귀분석 결과 등 통계분석 및 그래프 표현을 위해서는 Stata를 이용하였다.

$$D = \frac{x - \min(\text{value})}{\max(\text{value}) - \min(\text{value})}$$

D: 각 차원의 지수(dimension index)
 x: 각 자치구의 해당 지표값
 max(value)/min(value): 해당 지표값 중 가장 큰/작은 값



[그림 2] 사회적 질 지표의 구성

<표 2> 사회적 질 지수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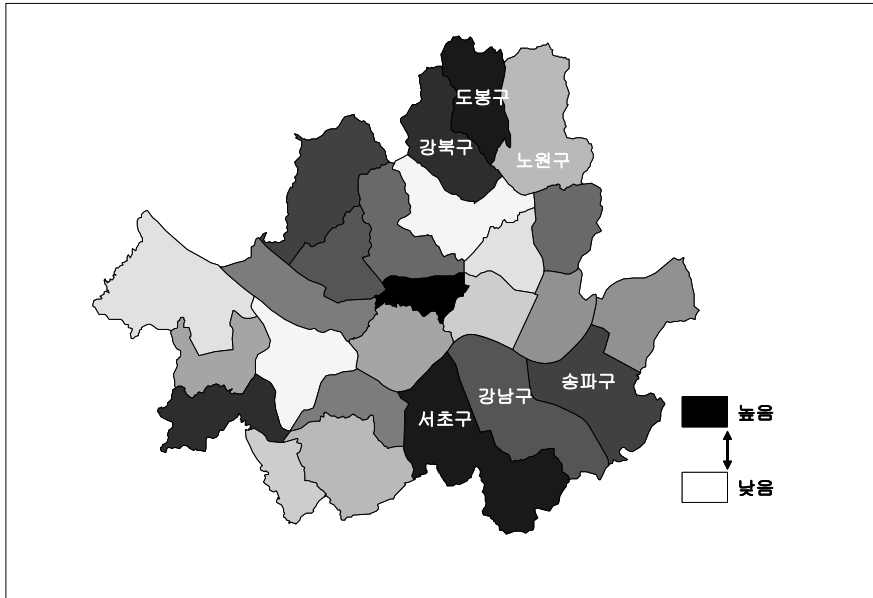
	안전성	사회적 포용	사회적 응집	사회적 권한부여
안전성	1			
사회적 포용	0.2403	1		
사회적 응집	0.3350	0.9634*	1	
사회적 권한부여	0.1638	0.4370*	0.5066*	1

위 <표 2>은 이렇게 계산된 4가지 사회적 질 지수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네 가지 영역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안전성은 다른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응집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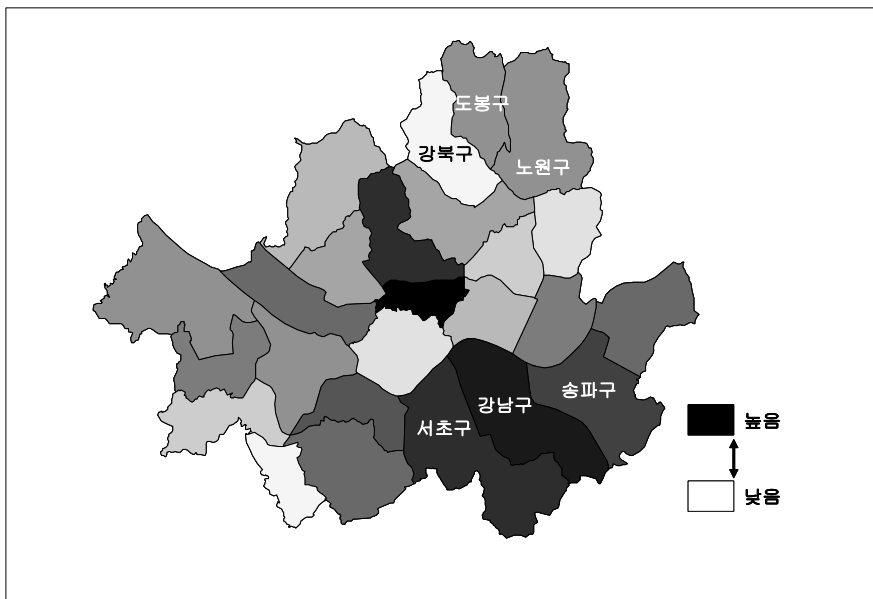
2. 서울 자치구별 사회적 질의 분포

이렇게 계산된 사회적 질 지수들을 각 자치구별로 파악하여 사회구조적 속성과의 관련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때 지역적 특성이나 그 영향력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던 정보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김두섭·박효준, 2003)는 점에서 GIS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음 일련의 그림([그림3]부터 [그림6]까지)은 ‘사회적 질’을 구성하는 4가지 지표의 수준을 ArcView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상에 나타낸 것이다. 이 지도상에서 검은색이 짙게 나타나는 지역일수록 ‘사회적 질’의 수준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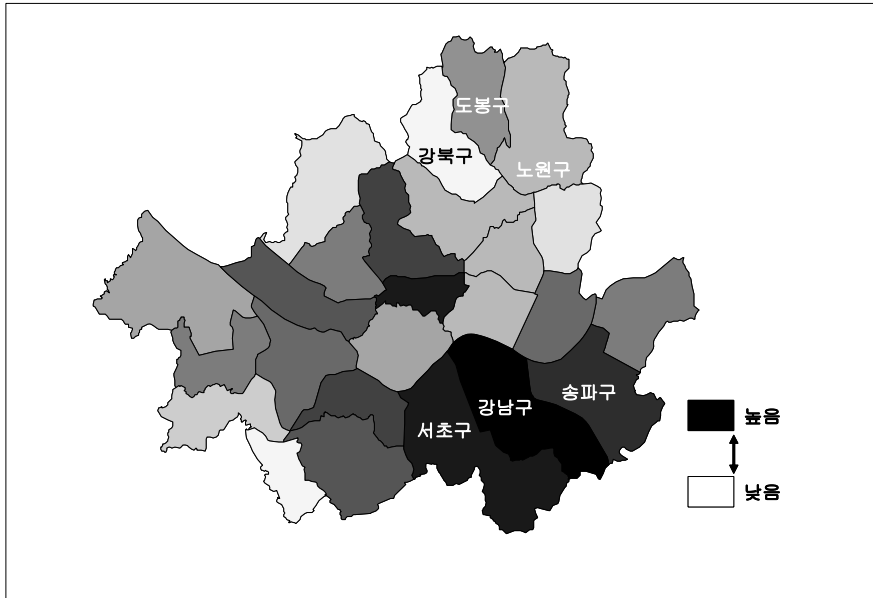
이 분석결과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사회적 요인들이 ‘독특한(sui generis)’ 결합을 이룬 결과”(Durkheim, 1897: 127)로 사회적 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먼저 안전성 차원의 사회적 질을 살펴보면, 강남권의 3개구와 강북권의 3개구의 안전성이 높게 나타나고, 그 외 자치구에서는 중구를 제외하고 안전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성격이 다르다고 인식되어 온 강남권의 3개구와 강북권의 3개구의 안전성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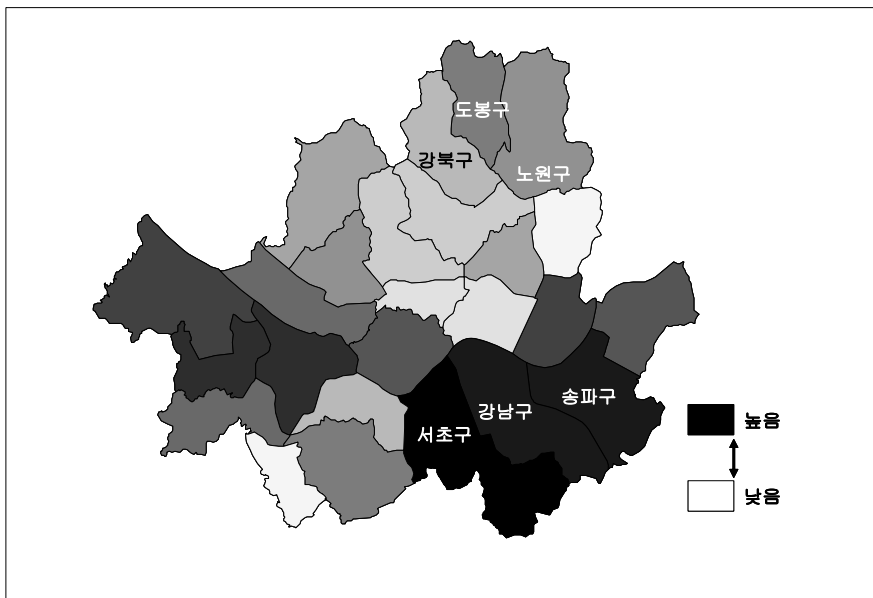
[그림 3] 서울 25개 자치구의 사회적 질(안전성)



[그림 4] 서울 25개 자치구의 사회적 질(사회적 포용)



[그림 5] 서울 25개 자치구의 사회적 질(사회적 응집)



[그림 6] 서울 25개 자치구의 사회적 질(사회적 권한부여)

난 것은 비록 안전성의 '수준'은 같게 나타났을지라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내용'과 '맥락'은 다를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안전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차원의 사회적 질, 사회적 포용·사회적 응집·사회적 권한부여의 항목에서는 강북구·도봉구·노원구 등 강북권에 비하여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권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높은 경제적 수준, 높은 교육수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중산층이 밀집해 있는 강남지역에 사회적 자본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⁰⁾.

이처럼 일관되게 강남권의 사회적 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서울 자치구 내에서 사회적 질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실시한 분산분석(ANOVA)의 결과 <표 3>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즉, 강남권, 강북권, 그 외 자치구별로 사회적 질 지수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표 3> 자치구별 사회적 질 지수 평균비교

	평균			F값
	강남	강북	그 외 자치구	
안전성	0.702	0.696	0.429	3.457*
사회적 포용	0.501	0.462	0.478	8.115**
사회적 응집	0.500	0.419	0.444	9.278***
사회적 권한부여	0.794	0.407	0.419	13.116***

주 : 1) *** p<.001, **p<.01, *p<.05

2) 각 평균 수치는 1을 만점으로 계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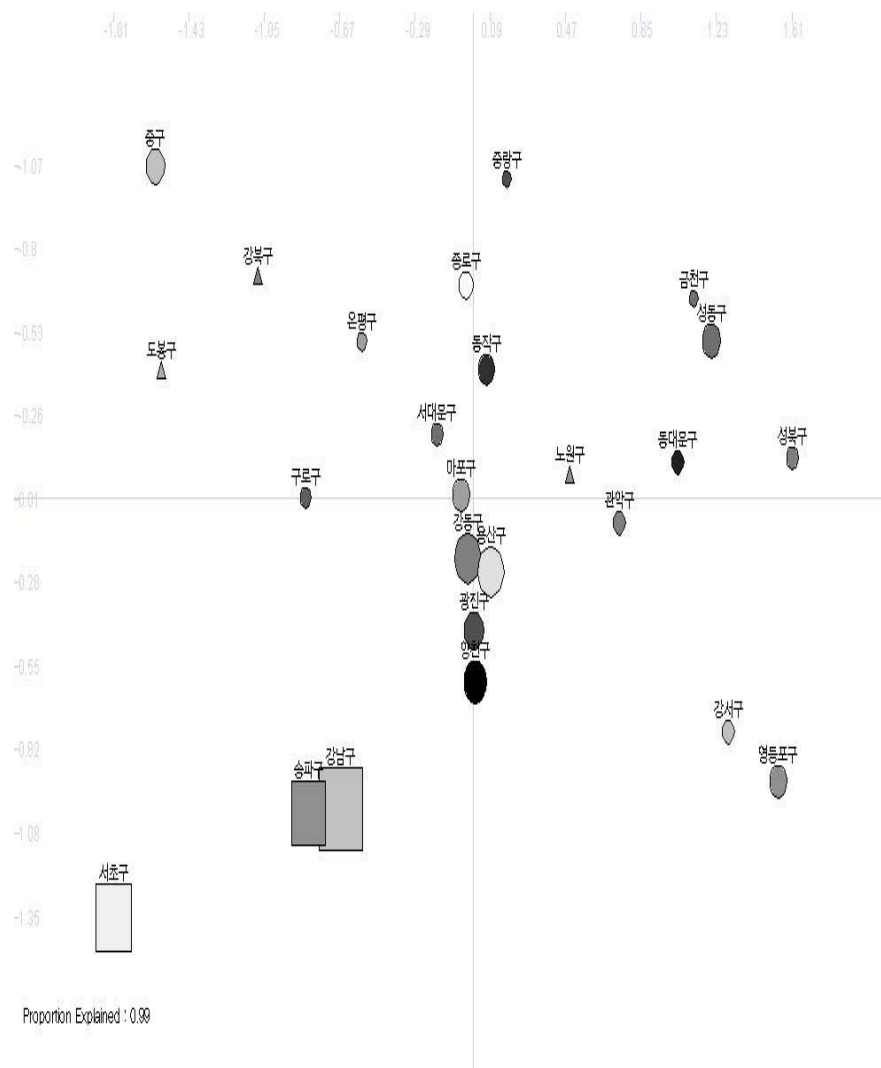
10) 특히 이들 세 가지 차원의 지수는 최근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Putnam, 1993; Fukuyama, 1995)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이란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도록 만드는 신뢰, 규범, 연결망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을수록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이익들을 조율하기 용이해지고 포괄적인 호혜성을 담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강남권의 자치구들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질을 확보하게 되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타났다. 특히, 도시 하부 구조가 발달한 강남의 경우, 사회적 포용, 응집, 관한부여의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뚜렷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특이한 점은 안전성 차원에서 강남권과 강북권의 차이가 크지 않고, 오히려 그 외 자치구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강남의 경우 공적 치안과 사적 치안이 모두 잘 구비되어 있어, 비교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높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두려움이 적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강북의 경우는 사회 하부구조는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강남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안전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절대적인 위험 상황 발생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 사회적 질에 따른 서울 자치구간 거리

앞서 살펴본 GIS 분석에서는 ‘사회적 질’을 구성하는 지표들의 분포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면, 다음 MDS (multidimensional scaling) 분석에서는 이들 ‘사회적 질’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 25개 자치구간 ‘사회적 질’ 수준이 유사한 정도를 시각화하여 보이고자 하였다. 특히 변수들 간의 정보를 단순화시켜 숨어 있는 구조(hidden structure)를 밝히는 MDS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질’을 구성하는 4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2차원 평면상에 지역들 간의 상대적인 거리를 살펴볼 경우, ‘사회적 질’이 나타남에 있어 상이성이 큰 지역일수록 서로 멀리 떨어져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질’이 서로 유사한 지역과 상이한 지역이 구분되는 한편, ‘사회적 질’의 수준에 따라 유사하게 묶인 지역 간의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¹¹⁾

11) 계산된 ‘사회적 질’의 4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Netminer 프로그램 상에서 노드 간에 얼마만큼의 공간적 거리가 존재하는지를 측정하는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 option)에 따라 ‘사회적 질’에 따른 지역간 거리를 계산하고 인접 행렬(proximity network)을 도출하였다. MDS 분석 자체에서 변수의 차원에 대한 고려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MDS상에 25개



[그림 7] 사회적 질에 따른 서울 25개 자치구간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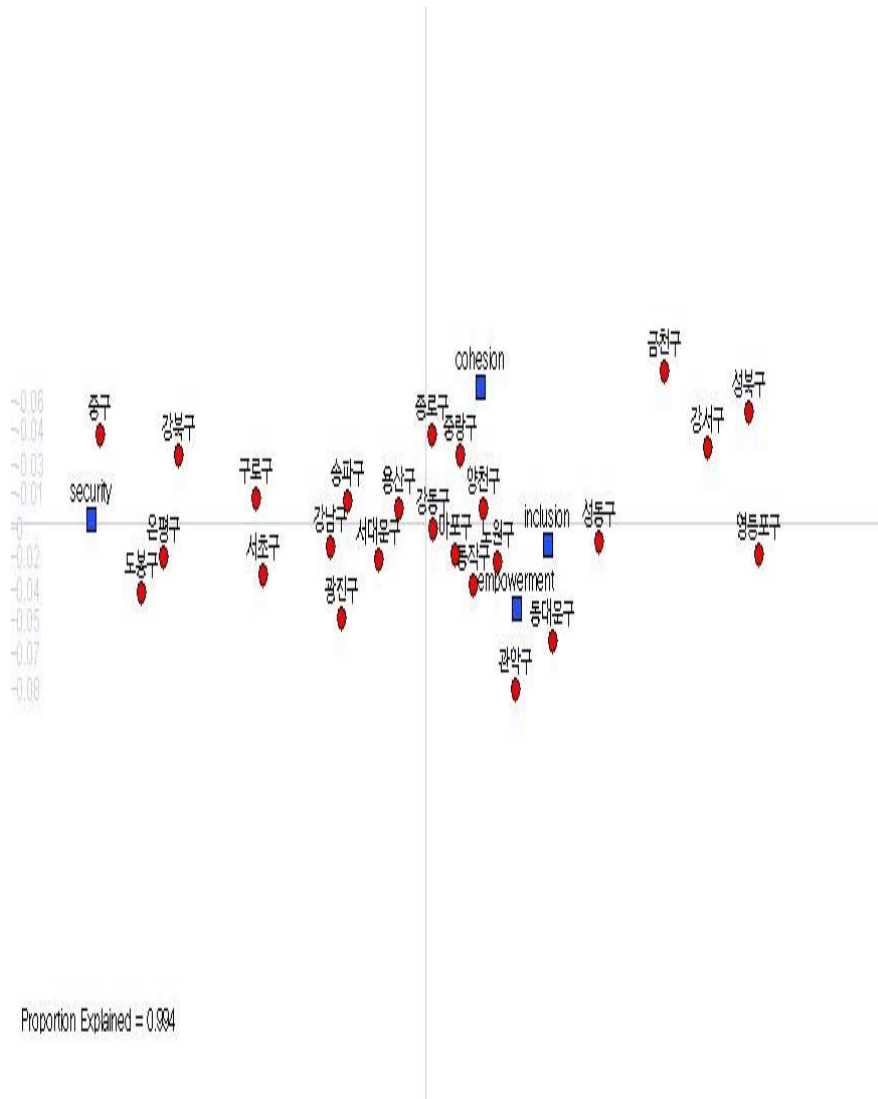
자치구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상이성(dissimilarity option)을 기준으로 배열하였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검게 표현하였으며,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크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강북의 3개구(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는 삼각형으로, 강남의 3개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사각형으로, 그 외 자치구는 원형으로 표현하였다. 2차원의 공간에서 '사회적 질'에 따른 자치구간 거리는 99.0%가 설명되어 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2차원 평면을 4개 사분면으로 나누었을 때, 제3사분면(왼쪽 아래)에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권의 3개 구가 위치해 있고, 제4사분면(왼쪽 위)에 이르는 영역에 강북구·도봉구 등 강북권의 2개 구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각 분면의 구분선에는 ‘점이지대’로서 그 외 자치구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 그림을 통해 강남권과 강북권은 단순히 한강이남·이북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인식과 활동상으로 드러난 자치구의 사회적 질을 토대로 측정된 거리로도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970년대 중앙정부 위주의 도시개발을 거친 후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강남권과 강북권의 하부구조 격차로 인하여 사회적 질의 격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 평당 매매가를 도형의 크기로 나타내었을 때,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강남권)과 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강북권)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자치구의 사회적 질과 자치구를 설명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일정한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앞의 MDS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질 수준에 따른 공간적 분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그림 8]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MDS 분석 결과는 ‘사회적 질’ 지표와 자치구간 거리를 함께 파악한 대응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은 빈도로 이루어진 분할표를 분석하여 그래프로 나타내 자료를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는 기법 가운데 하나인데(홍두승, 2003; 이명진, 2005), 대응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할 경우, 서로 유사한 변수들은 공간에서 서로 가깝게 나타나고, 상이한 변수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질’에 따른 자치구간 거리를 살펴봄에 있어 적절한 분석으로 판단하였다¹²⁾.

12) 대응분석을 위하여 ‘사회적 질’을 구성하는 4가지 지표를 전체에 대한 해당 자치구 지표값의 비율로 계산하여 상대빈도(profile)를 구하고 이를 토대로 분할표(contingency table)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분할표를 2-mode network와 동일함



[그림 8] 사회적 질과 서울 25개 자치구간 거리

형태로 이해하여 Netminer 상에서 대응분석을 실행, 4개의 ‘사회적 질’ 지표와 서울 25개 자치구 지역을 2차원 평면상에 위치시켰다. 2차원의 공간에서 ‘사회적 질’에 따른 자치구 및 변수간 거리는 99.4%가 설명되어 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빨간색 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지역을, 파란색 네모는 4가지 ‘사회적 질’ 지표를 의미한다.

대응분석의 결과로 나타난 [그림 8]을 살펴보면, ‘security(안전성)’ 변수 주위에 강남권과 강북권 지역이 몰려 있어 이들 지역이 안전성 차원에 있어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표 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cohesion(사회적 응집)’, ‘inclusion(사회적 포용)’, ‘empowerment(사회적 권한 부여)’ 등은 유사한 성격의 지수로 서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용산구·종로구·마포구 등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들은 평면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반면, 금천구·성북구·강서구·영등포구 등은 평면 오른쪽에서 군집을 형성하여 다른 자치구들과 일정한 거리를 보이고 있다.

4. 사회적 질의 설명모형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적 질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앞서 계산한 안전성, 사회적 포용, 사회적 응집, 사회적 권한부여의 4가지 지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강남과 강북, 그 외 자치구 구분을 더미(dummy)화한 변수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유의한 수준에서 사회적 질에 의미 있는 변수로 구성된 설명모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¹³⁾.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회귀모형을 산출하고, 포함된 변수를 비교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한 후, 설명모형에서 예측된 사회적 질의 수준과 강남권과 강북권을 구분짓는 대표적인 변수인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관련지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¹⁴⁾.

13) 단계적 회귀분석은 여러 독립변수 가운데 회귀모형에 포함시킬 변수를 간결성(parsimony)에 비추어 결정하는 방법으로, 증가하는 설명력이 높은 변수부터 차례로 회귀모형에 포함되며 일정한 유의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모형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이 연구에서는 유의수준을 $p\text{-value} < .05$ 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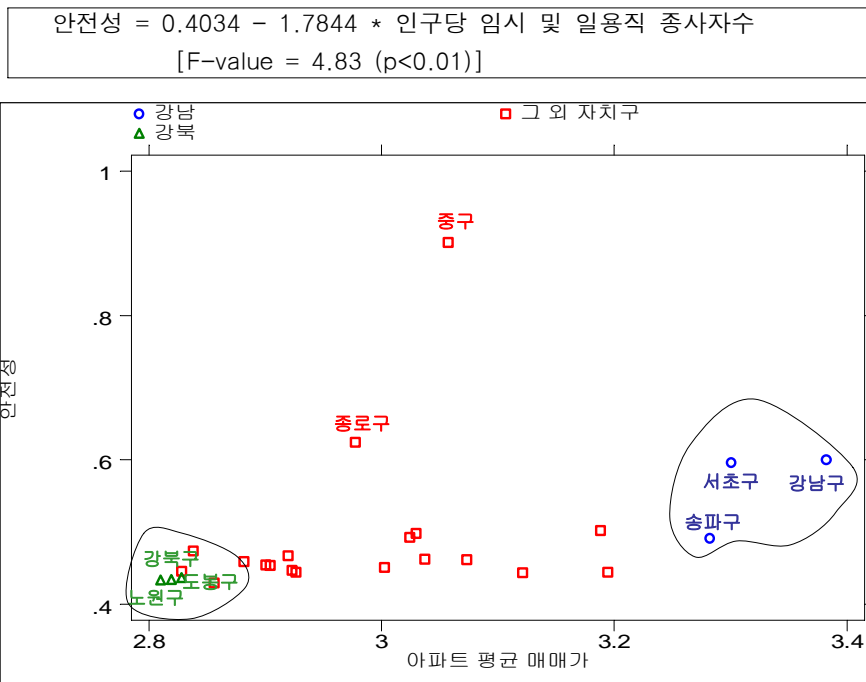
14) 모델에서 예측된 4가지 영역의 사회적 질은 각각 산점도로 표현하였다. 파란색 원형은 강남, 빨간색 사각형은 그 외의 지역, 초록색 삼각형은 강북을 의미한다.

1) 안전성

안전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안전성을 계산한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구분·사회경제적 속성에 관한 여러 지표를 설명변수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인 단계적 회귀모형에는 인구당 임시 및 일용직 종사자수의 1개 변수가 포함되었다(Adj. R-square=0.138).

위의 회귀모형을 통하여 안전성 차원의 사회적 질은 인구당 임시 및 일용직 종사자수가 많은 강북의 자치구일수록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를 토대로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안전성의 관계를 도출한 결과,



[그림 9]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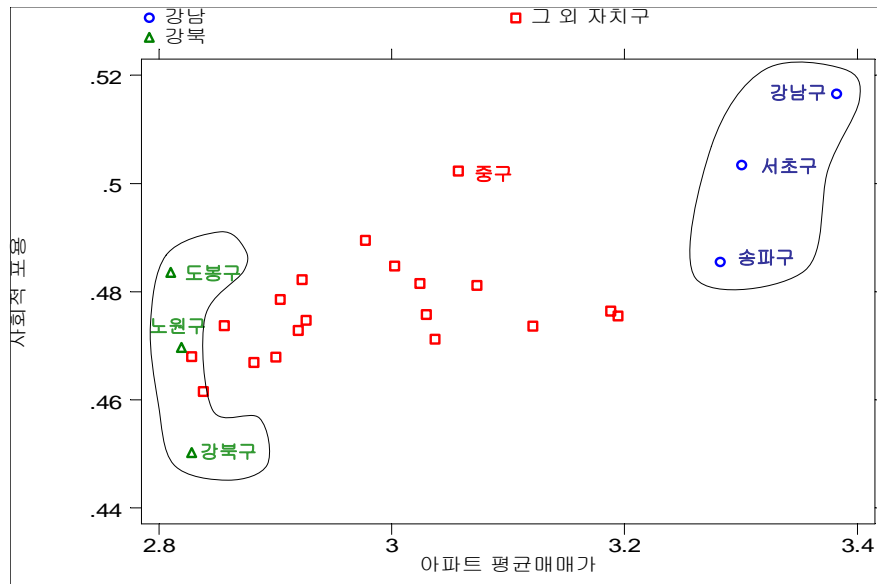
강남권인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가 강북권의 자치구나 그 외 자치구에 비하여 상당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역은 아파트 매매가와 안전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수준인 반면, 강북지역은 아파트 매매가와 안전성 측면에서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포용

사회적 포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포용을 계산한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구분·사회경제적 속성에 관한

$$\text{사회적 포용} = 0.3507 + 10.8112 * \text{인구당 의료기관수} + 0.2303 * \text{인구당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수} + 15.5760 * \text{인구당 이혼건수}$$

[F-value = 47.80 (p<0.001)]



[그림 10]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사회적 포용

여러 지표를 설명변수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인 단계적 회귀모형에는 인구당 의료기관수, 인구당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수, 인구당 이혼건수의 3개 변수가 포함되었다(Adj. R-square=0.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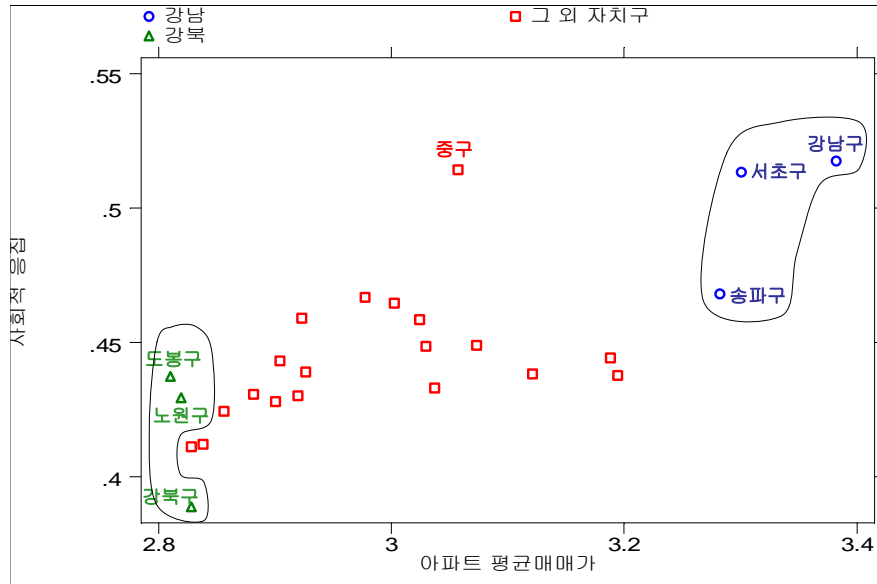
위의 회귀모형을 통하여 사회적 포용 차원의 사회적 질은 인구당 인구당 의료기관수, 인구당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수, 인구당 이혼건수가 많은 자치구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를 토대로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사회적 포용의 관계성을 도출해본 결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사회적 포용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비교적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낮은 강북 지역은 낮은 사회적 포용수준을,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높은 강남지역은 높은 사회적 포용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경제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중상층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일수록 다양한 집단이나 제도에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적 응집

사회적 응집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응집을 계산한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구분·사회경제적 속성에 관한 여러 지표를 설명변수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인 단계적 회귀모형에는 인구당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수, 인구당 임시 및 일용직 종사자수, 인구당 이혼건수, 지역구분(강북)의 4개 변수가 포함되었다(Adj. R-square=0.986).

$$\begin{aligned} \text{사회적 응집} = & 0.2629 + 0.4458 * \text{인구당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수} + \\ & 0.3425 * \text{인구당 임시 및 일용직 종사자수} + 9.8137 * \\ & \text{인구당 이혼건수} - 0.0056 * \text{지역구분(강북)} \\ & [F\text{-value} = 424.87 \text{ (} p < 0.001 \text{)}] \end{aligned}$$



[그림 11]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사회적 응집

위의 회귀모형을 통하여 사회적 응집 차원의 사회적 질은 인구당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수와 인구당 임시 및 일용직 종사자수, 인구당 이혼건수가 많으며 강북에 위치한 자치구가 아닐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를 토대로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사회적 응집의 관계성을 도출해본 결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사회적 응집은 매매가와 사회적 포용과 마찬가지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비교적 아파트 매매가가 낮은 강북 지역은 낮은 사회적 응집 수준을, 매매가가 높은 강남지역은 높은 사회적 응집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집단이 집합적으로 거주할수록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양한 제도에 높은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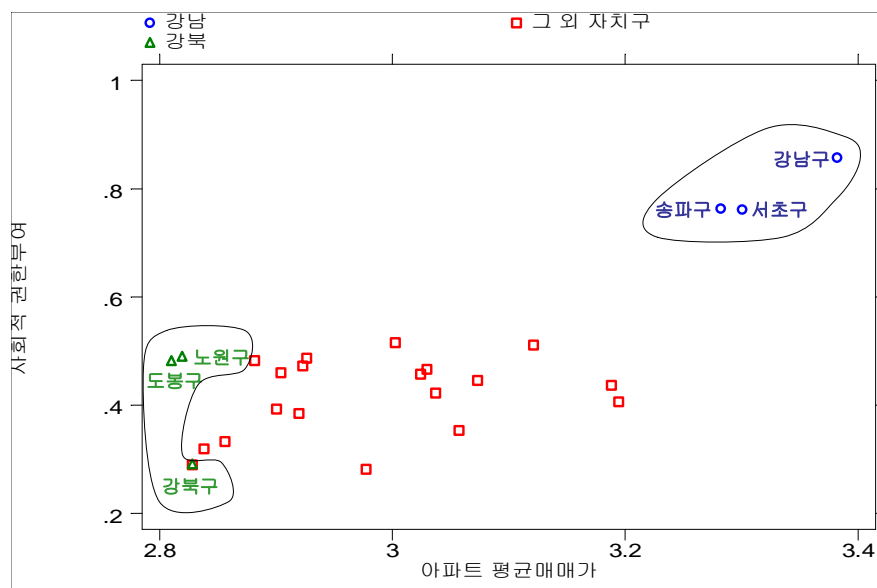
4) 사회적 권한부여

사회적 권한부여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권한부여를 계산한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구분·사회경제적 속성에 관한 여러 지표를 설명변수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인 단계적 회귀모형에는 인구당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수, 인구당 전출자수, 지역구분(강남)의 3개 변수가 포함되었다(Adj. R-square=0.688).

위의 회귀모형을 통하여 사회적 권한부여 차원의 사회적 질은 인구당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수가 많고 인구당 전출자수가 적은 강남의 자치구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text{사회적 권한부여} = 0.5887 + 2.2464 * \text{인구당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수} - 4.4013 * \text{인구당 전출자수} + 0.2113 * \text{지역구분(강남)}$$

[F-value = 18.85 (p<0.001)]



[그림 12]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사회적 권한 부여

이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사회적 권한의 관계성을 도출해본 결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사회적 권한부여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비교적 아파트 매매가가 낮은 강북 지역은 낮은 사회적 권한부여를, 매매가가 높은 강남지역은 높은 사회적 권한부여를 나타냈다. 특히, 중산층 집합 거주 지역인 강남지역은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대의 개발정책과 지방자치제 이후 강남에 강력한 하부구조가 집중되는 현상과 함께 강남·북, 혹은 강남과 그 외 지역의 사회의 질의 차이를 더욱 더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내 각 자치구는 단순한 행정적 구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비롯하여 사회·경제적 하부구조를 집합적으로 영위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서울의 각 자치구들은 1970년대 도시개발의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균등한 하부구조를 지니게 되었으며, 이는 1995년 지방자치제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자치구의 구조 차이는 해당 자치구의 주민들이 누리는 '사회적 질'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구조적 변수로 수집된 자료는 인구당 수치로 변환하여 UNDP가 *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서울 '특별시'라는 공간 안에서는 나타나는 사회적 질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5년도 『서울서베이』 보고서로부터 수집한 사회적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응답 자료로 사회적 질을 크게 4가지 차원으로 구분, 각 차원의 사회적 질 지수를 계산하고 이를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자

치구별 사회적 질 지도를 제시하였다.

GIS 분석결과 안전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차원의 사회적 질, 즉 사회적 포용·사회적 응집·사회적 권한부여의 항목에서는 강북구·도봉구·노원구 등 강북권에 비하여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권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산층이 밀집해 있는 강남권에 사회적 자본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성의 경우는 강남권의 3개구와 강북권의 3개구의 안전성이 높게 나타나고, 그 외 자치구에서는 중구를 제외하고 안전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DS(multidimensional scaling) 분석에서는 이들 ‘사회적 질’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 25개 자치구간 ‘사회적 질’ 수준이 유사한 정도를 시각화하여 보이게 하였다. 분석 결과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권, 강북구·도봉구 등 강북권의 2개 구가 밀집되어 위치해 있었고, 각 분면의 구분선에는 ‘점이지대’로서 그 외 자치구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강남권과 강북권의 지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인식과 활동상으로 드러난 자치구의 사회적 질을 토대로 측정된 거리로도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응분석의 결과에서는, ‘security(안전성)’ 변수 주위에 강남권과 강북권 지역이 몰려 있어 이들 지역이 안전성 차원에 있어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응집’, ‘사회적 포용’, ‘사회적 권한 부여’ 등은 유사한 성격의 지수로 서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용산구·종로구·마포구 등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들은 평면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반면, 금천구·성북구·강서구·영등포구 등은 평면 오른쪽에서 군집을 형성하여 다른 자치구들과 일정한 거리를 보이고 있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구분·사회경제적 속성에 관한 여러 지표와 안전성, 사회적 포용, 사회적 응집, 사회적 권한부여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질의 네 가지 영역인, 사회적 응집, 사회적 포용, 사회적 권한 부여, 안전성 모두 강남일수록 높고,

강북일수록 낮게 측정되었다. 또한 사회적 질의 네 가지 영역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 고등교육기관진학자수와의 관계에서 강남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울의 지역 분화의 원인이 한국의 독특한 도시개발 과정을 통해 구조적으로 배태(embed)되었으며, 지방자치제의 경험이가시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의 명맥을 잇고 있다. 나아가,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담론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이를 경험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에 그 가치가 있다. 또한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서로 관련지음으로써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인 사회적 질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차원의 연구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가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변수의 선정과 이를 토대로 제시한 모델에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수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표가 16개 시·도별로 집계되어 있어 자치구별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사회적 질’의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서 나타나는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유럽과 한국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다른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개념을 한국적 맥락에서 재조정하는 노력이 더욱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담론과 새로운 개념을 시각적이고 경험적인 접근을 시도해 본 기초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과 개념의 명확화를 통해 좀 더 독창적이고 분석적인 틀을 세우는 것은 향후 연구자의 과제이며, 향후 지역의 다양한 하부구조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사회적 질의 편차를 설명하고자 하는 양적인 연구들이 보다 축적된다면 사회적 질 차이의 발생에 관하여 좀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asset, K. and Short, J.(1994), 『도시주택연구』 (윤인숙 역, 한울 아카데미).
- Beck W. Van der Maesen, A. Walker (eds). (1998), *The Social Quality of Europe*. Bristol. The Polity Press.
- Castells, Manuel, 1972, Afterword 1975 , *The Urban Question: a Marxist approach*, Cambridge, Mass. : MIT Press
- Durkheim, Emile.(1897), *Le suicide: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임희섭 역(1992), 『자살론·사회분업론』. 삼성문화개발).
- Esping-Andersen, Gøsta (1996),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 national adaptations in global economies*, London : Thousand Oaks, Calif. : Sage.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 Free Press
- Goldsmith, M.(1995), "Autonomy and City Limits", *Theory of Urban Politics*, London: Sage.
- Gurr, T. and King, D.(1987), *The State and the City*, Chicago: Chicago Press.
- Harvey, D.(1996), 『도시의 정치경제학』, 한울.
- Herrmann, Peter(2007). "Empowerment- A Key Concept in Re-defining Citizenship on the Way to Sustainable Welfare Society." ,*The Second Social Quality Conference in Asia- Social Quality and Sustainable Welfare Societies*.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pei.
- Massey, Douglas S. Brendan P. Mullan. (1984). Processes of Hispanic and Black Spatial Assimilation , American

- Journal of Sociology 89(4): 836-873.
- Myungsook, Woo,(2004), *The politics of social welfare policy in South Korea : growth and citizenship*, Lanham, Md. : Oxford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Ostner, Ilona et al.,(2005), "European Network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The German National Report", European Foundation of Social Quality
- Peterson, P.(1981), *City Limi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hillips, D. and Berman, Y.(2003), *Social Quality and Ethnos Communities : Concepts and Indicator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 Saunders, P.(1998), 『도시와 사회이론』, (김찬호 외 역, 한울 아카데미).
- StataCorp.(2005), *Stata Statistical Software: Release 9.0*. College Station, TX: Stata Corp.
- Stinchcombe, A. L.(1968), *Constructing Social Theorie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 Power, Anne, (2000), "Social Exclusion and the Future of Cities", CASEpaper35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 Simon & Schuster
- 김두섭·박효준(2003), “사망력 수준의 시·군별 편차 및 그 변화 추이, 1990~2000년,” 《한국인구학》 26(1): 1-30.
- 김진원(2007), 빈곤청소년의 하위계급 형성과정 : 사회적 고립과 빈곤 재생산, 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학위논문.
- 김창석(2002), 서울시 상류계층(파워엘리트)의 주거지역 분포특성과

-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7(5).
- 노병일(2006), 취약지역의 사회적 배제, 도서출판 다운샘.
- 박종민 편(2000), 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나남출판.
- 박용치(1996), “도시정부의 경영진단 : 개념적 틀”, 地方行政研究 11권 2호
- 성열관(2005), 거주지 분화와 교육격차: 미국의 현실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주는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제 15권 1호
- 손정목(1999), “서울 도시계획이야기 (34) : 강남개발계획의 전개 (4) -제1,제2 영동지구 구획정리사업-”, 국토 208호
- 윤인진(1998), 서울시의 사회계층별 거주지 분화 형태와 사회적 함의, 『서울학연구』 제 10권
- 이광희(2002), 한국의 도시정부 성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 이명진(2005), 「대응분석」,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127-157.
- 이재열(2003), “사회적 자본과 시민의식: 서울시 자치구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주는 함의,” 《지역사회학》 5(1): 41-81.
- 이현송(1997), “한국인의 삶의 질: 객관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1(여름): 269-301.
- 차종천 외(2004), 서울시 계층별 주거지역 분포의 역사적 변천, 백산서당.
- 한민경(2007), 위험의 지역별 편차와 발생구조: 전국 232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학위논문.
- 홍두승(2003), 『사회조사분석(제3판)』. 다산출판사.
- 홍영립(1993), 서울시 강남개발의 발전과 거주지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홍운기(2004),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요인 분석: 기초지방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별첨 1> 기본 변수에 대한 기초분석

		N	Mean	Std. Deviation
구조적 요인	인구당이혼건수	25	.0025	.00035
	인구당전입자수	25	.1919	.01801
	인구당전출자수	25	.1985	.01356
	인구당5명이상사업체수	25	.0157	.01669
	인구당은행점포수	25	.0002	.00028
	인구당의료기관수	25	.0014	.00072
	인구당공무원수	25	.0034	.00169
	인구당차량등록대수	25	.2765	.05978
	인구당지방세납입액(ln)	25	.0000	.00001
	인구당고등교육기관진학자수	25	.3213	.05259
	인구당임시일용직근로자수	25	.0508	.05618
	아파트평균매매가(ln)	25	3.0040	.16352
사회경제적 안전 (Social Security)	자연재해 안전감	25	.5038	.02708
	서울밤길 안전감	25	.6336	.01916
	범죄피해 안전감	25	.6240	.01748
	붕괴 안전감	25	.5752	.02099
사회적 응집 (Social Cohesion)	노인참여정도	25	.6166	.07959
	스포츠레저활동 참여율	25	.0837	.02102
	대중문화 참여율	25	.5381	.04891
	순수문화활동참여율	25	.1144	.03458
	교양서적 독서량	25	.4154	.14033
	노인부양	25	.6171	.04046
사회적 포용 (Social Inclusion)	교통만족도	25	.5523	.02644
	행복지수	25	.6762	.01835
	약자에 대한 태도	25	.5534	.01764
사회적 권한부여 (Social Empower- ment)	가사노동편중정도	25	.2833	.01611
	지역커뮤니티 참가율	25	.2803	.05194
	서울 고향 인식율	25	.2871	.04832
	환경오염 방지노력	25	.6440	.02072
	자원봉사자 비율	25	.1476	.03470
	시민기부	25	.4139	.04995

<별첨 2.1> 사회적 질 1-사회경제적 안전 (Socio-Economic Security)

평가영역		지표
금융적 차원	소득 능력	가구소득 중 의료, 의복, 식량 및 주거에 사용된 비율
	소득 안정	가구의 빈곤을 야기한 생애사건
		총인구 중 이전소득을 받는 가구의 비율
주거 및 환경	주거 안정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의 비중
		혈연관계가 아닌 가족의 비율(예: 동일 가구 내 여러 가족의 종류)
	주거 환경	가구구성원당 면적
		기초적 설비(물, 위생, 에너지)가 결여된 주택에 사는 인구의 비중
	환경 조건 (사회, 자연)	거주자 만명당 범죄 희생자
의료 및 케어	의료권	강제적/자발적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비율
		만명당 의사 수
	의료서비스	병원까지 가는 평균 시간(분)
		응급차의 평균 출동비율
	케어서비스	평균 케어시간(지불/미지불)
노동	고용안정성	노동계약 조건이 변화할 경우 고용주의 사전고지시간
		노동계약 완료 이전 사전고지시간
		임시노동 비중
		불법 노동력 비중
	노동조건	양육, 건강상 노동시간을 줄이게 된 노동자의 비중
		10만명당 산재피해자수
		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주당 시간
교육	교육안정성	자퇴비율(의무교육)
		국민 순평균임금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
	교육의 질	졸업 자퇴 구분없이 1년 내에 취업 가능한 학생의 수

자료: European Network Indicators on Social Quality - British National Report, 2005.

<별첨 2.2> 사회적 질 2 -사회적 응집 (Social Cohesion)

평가영역		지표
신뢰	일반적 신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증가
	특정한 신뢰	교회, 군대, 교육, 언론, 노조, 경찰, 의회, 공무원, 사회복지제도, 언론, 사법, 행정, 정당, 대기업, 환경운동, 여성운동에 대한 신뢰
		European Court Law에 언급된 사례
		가족, 친구, 여가, 정치, 부모 공경,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의 중요성
기타 통합적 규범과 가치	이타주의	일주일에 봉사활동에 할애하는 시간
		헌혈
	관용	이민자에 대한 시각
		다양한 삶의 방식(주체, 신앙, 생활양식)에 대한 시각
	사회계약	가난의 원인에 대한 시각(개인 vs 구조)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세금을 낼 의향
		노인을 위해 세금을 1% 더 낼 의향
		커뮤니티의 타인을 위해 봉사를 할 의향
		남녀간 가사분담(양육, 가사일 등)
사회연결망	정치모임, 자원봉사모임, 스포츠 모임에 참여	
	가족, 친구, 이웃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친구, 동료와 만나는 횟수	
정체성	민족/유럽	국가에 대한 자긍심
	정체성	국가/EU의 상징에 대한 동일시
	지역정체성	지역/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
		친구와 가족에 대한 소속감

자료: European Network Indicators on Social Quality- British National Report, 2005.

<별첨 2.3> 사회적 질 3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평가영역		지표
시민권	정치권	시민권을 받는 거주자의 비율
		지역 내 투표권 있는 사람들의 비율
	사회권	공적연금 가입율
		남녀 임금비
	시민권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율
		차별을 경험한 비율
	정치경제적 네트워크	소수인종이 국회, 기업(간부)에 진출한 비율
		여성이 국회, 기업(간부)에 진출한 비율
노동시장	유급노동접근	12개월이상 장기실업률
		비자발적 비정규직
사회서비스	건강서비스	일차의료기관(보건소등) 이요 비율
	거주	노숙자, 부랑자 비율
		임대주택 대기기간
	교육	취학률/고등교육진학률
	사회적 케어	케어서비스가 필요한 인구의 비율
		아동케어를 포함한 케어서비스 평균 대기 시간
	금적서비스	소득에 따른 신용(대출 등) 거부율
		금융지원, 조안에 대한 접근정도
	교통	대중교통에 접근성이 있는 인구
		대중교통밀도/도로밀도
사회연결망	시민/문화 서비스	인구 만명 당 스포츠시설수
		인구 만명 당 문화예술시설수
	이웃 참여	이웃과의 정기적 접촉비율
	친구/우정	친구와의 정기적 접촉비율
	가정생활	외로움/고립감을 느끼는 비율
		친척과의 접촉시간(거주/비거주)
		가족으로부터의 비공식적(금전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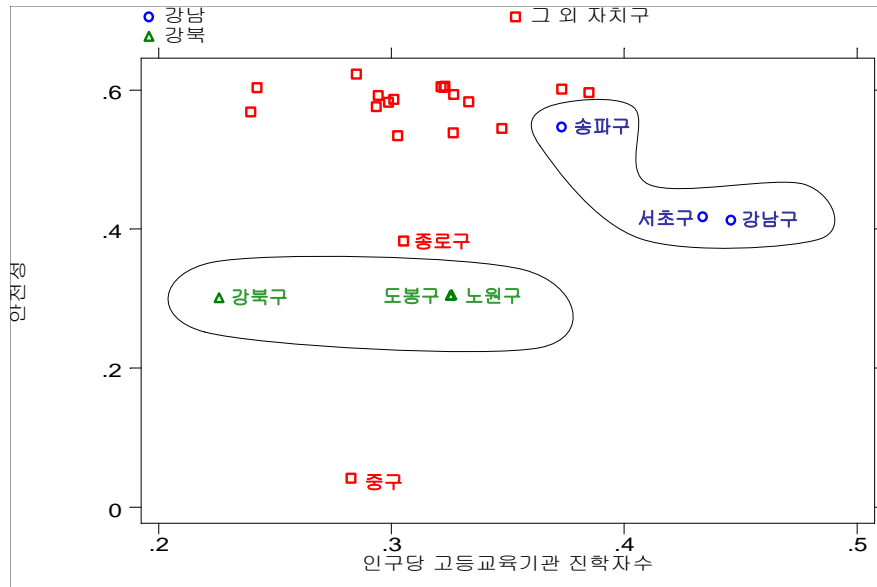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Network Indicators on Social Quality- British National Report, 2005.

<별첨 2.4> 사회적 질 4-사회적 권한부여 (Social Empower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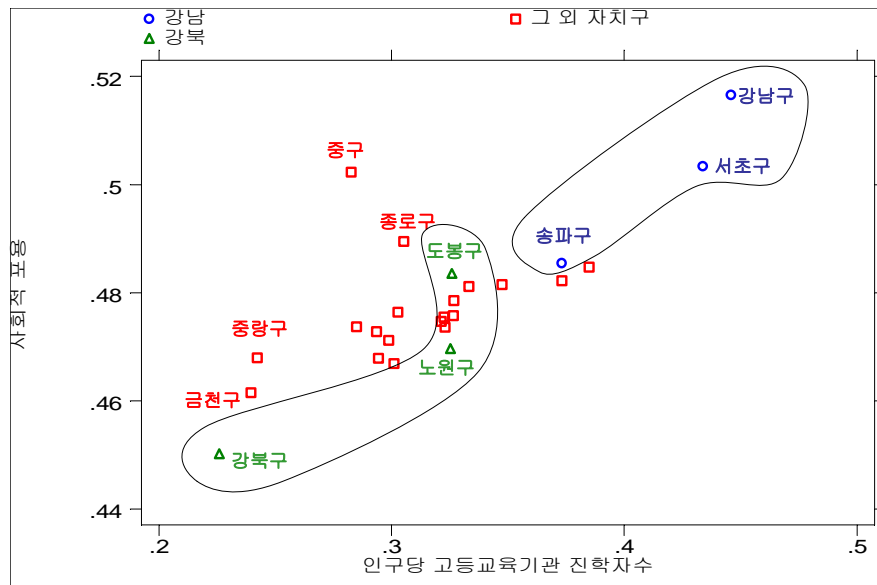
평가영역		지표
지식기반	지식적용	지식기반 사회이동의 확대
	정보활용	문자해득률
		신문구독률
		TV보급률
		인터넷 가입률
노동시장	정보의 사용자 편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다양한 언어로 공급되는 정보 무료 번호를 받을 수 있는 비율
	노동계약	노조가입률
	조절	단체협약 포괄 비율
	직업 이동 전망	직업훈련 비율
		공적 직업훈련 비율
		직업 재활훈련에 참여하는 비율
	일과 가정 일치	노동에 있어서 적절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 비율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노동자의 비율
기관의 개방성과 지지도	정치 개방성과 지지도	협약 과정과 직접 민주주의 존재여부
	경제 개방성과 지지도	주요 경제 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
	조직 개방성과 지지도	노동위원회가 있는 조직의 비율
공적 공간	집합 행동 지지도	공적 자금 비율
		지난 12개월간 열린 금지된 시위의 수
	문화적 풍요	문화활동에 관련된 지역적 국가적 예산 비율
		자발적으로 조직된 문화조직과 행사의 수 문화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자기계발
개인적 관계	물리적 사회적 독립을 위한 서비스 공급	장애인에 투자하는 지방정부/국가 예산 아동 케어의 정도(취학전, 취학후)
	사회적 상호작용	주거와 환경 디자인(예. 모임공간, 조명, 구획 등)의 확장

자료: European Network Indicators on Social Quality- British National Report,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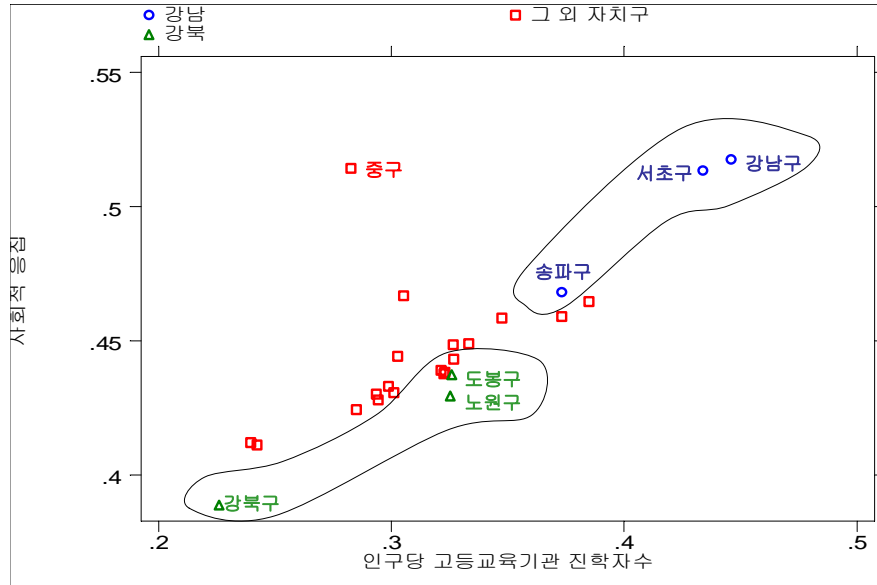
<별첨 3.1> 인구당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수와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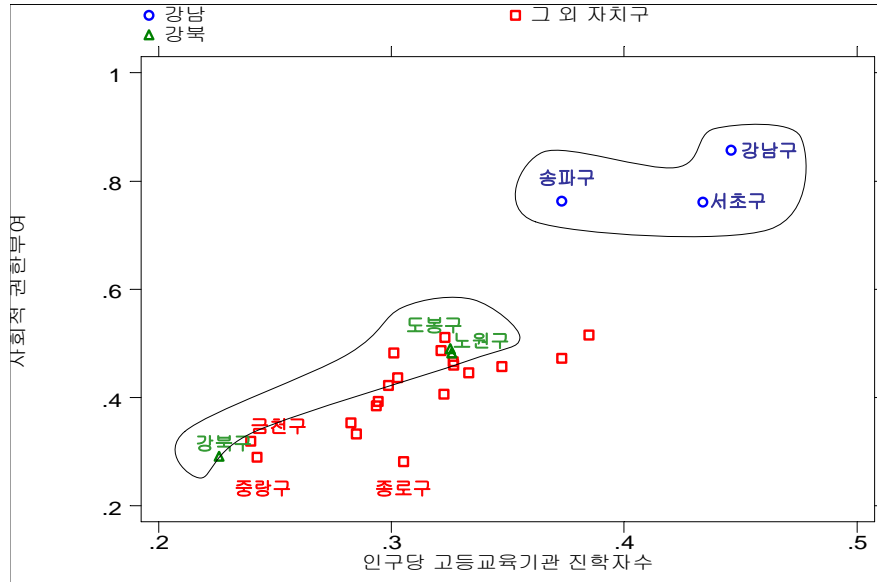
<별첨 3.2> 인구당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수와 사회적 포용



<별첨 3.3> 인구당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수와 사회적 응집



<별첨 3.4> 인구당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수와 사회적 권한부여



<별첨 4.1> 안전성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model 1		model 2	
인구	인구당이혼율	0.110		-4.138	
구조	인구당전입인구수	0.802	*	0.779	
및	인구당전출인구수	0.313		0.249	
변동	인구당5인이상사업체수	7.611	**	7.337	*
	인구당은행점포수	339.277	**	358.159	
	인구당의료기관수	-48.290	*	-47.167	^
	인구당공무원수	78.839	*	71.299	*
	인구당차량등록대수	-0.006		-0.036	
	인구당지방세납부액(ln)	-215.842	*	-194.665	*
	인구당고등교육진학자수	-0.137		-0.142	
	인구당임시및일용직종사자수	-3.462	***	-3.486	*
	아파트평균매매가(ln)	0.027		0.014	
지역	강남(dummy)			0.081	
구분	강북(dummy)			-0.082	
	상수	-1.546		-0.779	
	adj. R-sq.	0.596		0.528	

<별첨 4.2> 사회적 포용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model 1		model 2	
인구	인구당이혼율	1.656	**	1.413	*
구조	인구당전입인구수	-0.012		-0.022	
및	인구당전출인구수	0.015		0.006	
변동	인구당5인이상사업체수	0.061		-0.037	
	인구당은행점포수	4.045		-1.923	
	인구당의료기관수	-0.258		0.529	
	인구당공무원수	2.189	**	1.779	
	인구당차량등록대수	0.003		0.006	
	인구당지방세납부액(ln)	-6.499	**	-5.479	*
	인구당고등교육진학자수	0.023	***	0.025	***
	인구당임시및일용직종사자수	-0.014		0.035	
	아파트평균매매가(ln)	0.000		0.000	
지역	강남(dummy)			-0.010	
구분	강북(dummy)			-0.006	
	상수	0.340	***	0.376	***
	adj. R-sq.	0.861		0.869	

<별첨 4.3> 사회적 응집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model 1		model 2	
인구	인구당이혼율	1.158	*	0.862	
구조	인구당전입인구수	-0.010		-0.018	
및	인구당전출인구수	0.010		0.001	
변동	인구당5인이상사업체수	0.027		-0.057	
	인구당은행점포수	1.175		-3.096	
	인구당의료기관수	-0.015		0.636	
	인구당공무원수	1.333		0.827	
	인구당차량등록대수	0.000		0.002	
	인구당지방세납부액(ln)	-3.816		-2.496	
	인구당고등교육진학자수	0.043	***	0.045	***
	인구당임시및일용직종사자수	0.025		0.063	
	아파트평균매매가(ln)	0.001		0.000	
지역	강남(dummy)			-0.006	
구분	강북(dummy)			-0.007	
	상수	0.229	***	0.277	***
	adj. R-sq.	0.978		0.981	

<별첨 4.4> 사회적 권한부여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model 1		model 2	
인구	인구당이혼율	2.225		0.962	
구조	인구당전입인구수	0.067		0.050	
및	인구당전출인구수	-0.443	^	-0.468	
변동	인구당5인이상사업체수	-2.064	^	-2.243	
	인구당은행점포수	-14.786		-17.569	
	인구당의료기관수	-4.034		-2.840	
	인구당공무원수	-27.026	^	-29.241	
	인구당차량등록대수	0.146	*	0.143	
	인구당지방세납부액(ln)	60.953		67.018	
	인구당고등교육진학자수	0.173	*	0.174	^
	인구당임시및일용직종사자수	0.681		0.734	
	아파트평균매매가(ln)	0.018		0.014	
지역	강남(dummy)			0.006	
구분	강북(dummy)			-0.026	
	상수	-0.126		0.093	
	adj. R-sq.	0.783		0.742	